

# 榮留王代 高句麗의 對唐關係와 西北方情勢

김진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고대사 전공  
historian77@hanmail.net

I. 머리말

II. 榮留王代 政局主導勢力과 大對盧

III. 榮留王 前期의 對唐關係와 東突厥

IV. 榮留王 後期の 對唐關係와 薛延陀

V. 맺음말

## I. 머리말

영류왕대 고구려는 對隋戰爭에 따른 과제를 안은 채 출발하였으며 對唐戰爭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에 처해 있었다. 특히 국제정세는 唐과 西北方諸國과의 力關係에 따라 요동쳤으며 고구려는 이러한 대외환경 속에서 자구책을 모색하였다. 당시 고구려의 대당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니시지마는 당이 624년 고구려를 책봉함으로써 당을 중심으로 한 책봉체제가 성립되었으며 책봉이 갖는 규정력에 의해 양국관계는 규제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sup> 키토는 지배계급 상호간의 결합으로 형성된 國際的政治世界란 場을 설정하고 이 속에서 諸國家는 국내적 모순과 국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규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 아래 돌궐이 격파된 629년을 기점으로 당을 중심으로 국제적 정치세계는 규정력을 완성하였으며 고구려와 당은 적대관계로 돌아섰다고 이해하였다.<sup>2)</sup> 히노는 고구려가 형식적으로 稱臣外交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당에 대해 抗衡의 태도를 취하였다고 보았다.<sup>3)</sup>

이상의 견해가 당을 중심으로 고구려와의 관계를 검토했다면 노중국은 自國의 實利와 勢力均衡을 모색하는 三國의 政治的 力關係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唐初 고구려는 당과 화평관계에 있었으나 돌궐이 복속된 이후 냉각관계로 돌아섰다고 이해하였다.<sup>4)</sup> 임기환은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정세가 수·당과 고구려, 한반도 내 삼국 간의 전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변동하였으며 양자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와 당의 관계는 돌궐의 당복속을 계기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sup>5)</sup>

한편, 고구려 정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류왕대 대당관계를 이해하려

1) 西嶋定生, 「六-八世紀の東アジア」,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東京大學出版會, 1983), 440-442쪽.

2) 鬼頭清明,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校倉書房, 1976), 47-52, 104-109쪽.

3) 日野開三郎, 「粟末靺鞨の對外關係」,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5卷(三一書房, 1991), 234-239쪽.

4)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1981), 93-94쪽.

5)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일조각, 2006), 69-77쪽.

는 흐름도 있다. 신채호는 대외정책과 관련지어 영류왕과 연개소문의 대립축을 중심으로 논의<sup>6)</sup>를 했는데 이로써 대외관계를 좀 더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sup>7)</sup>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양자의 대립축을 토대로 고구려 정국을 분석하였다. 김기홍은 귀족연립정권 아래 大對盧가 누리던 권한을 유지하려는 연개소문과 왕권을 확립하려던 영류왕의 대결구도로 보았다.<sup>8)</sup> 전미희는 연개소문 가문과 왕위찬탈을 꿈꾸던 太陽王계의 일부왕실세력을 한편으로, 그 반대에 있던 영류왕과 귀족들을 묶어 양 세력의 대립구도 속에서 정국을 파악하였다.<sup>9)</sup> 이성시는 당과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국제환경 아래 체제개혁에 미온적인 舊守勢力과 族的인 體制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집권화를 모색하는 연개소문의 갈등구조를 검토하였다.<sup>10)</sup> 이호영은 친연씨파와 반연씨파인 왕당파로 구분하여 정국을 이해하였다.<sup>11)</sup> 임기환은 국내계 귀족세력의 지원을 받아 즉위한 영류왕의 대외온건노선과 대외강경노선을 견지하는 평양계 귀족세력의 대립구도로 파악하였다.<sup>12)</sup>

영류왕과 연개소문의 대립축을 토대로 한 기존 시각은 대당관계의 변화와 연개소문에 의한 영류왕의 시해 등을 염두에 두고 당시 정국을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영양왕대 고구려는 斛斯政을 압송하고, 謝罪使를 파견하는 등 對隋關係의 개선을 모색하였으며 隋末唐初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영양왕의 대외정책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 이런 점에서 '평원왕대 귀족연립적 정치운영을 견제·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왕근시 조직으로 막리지로 대표되는 중리제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개소문가가 성장할 수 있었다'<sup>13)</sup>고 본 연구가 주목된다. 이는 연개소문(이하淵氏家)과 왕권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양자를 대립관계로 바라보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6) 申采浩 著·李萬烈 註釋, 『朝鮮上古史(下)』(형설출판사, 1983), 402-410쪽.

7) 盧泰敦, 「高句麗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52(1986), 213쪽.

8) 金基興, 「고구려 淵蓋蘇文政權의 한계성」,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아세아문화사, 1992), 29-30쪽.

9) 田美姬, 「淵蓋蘇文의 執權과 그 政權의 性格」, 『이기백교수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상)』(일조각, 1992).

10) 李成市, 「高句麗泉蓋蘇文의 政變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1(1993), 196-199쪽.

11) 李昊榮, 「당과의 전쟁」, 『한국사』 5(국사편찬위원회, 2003), 128-129쪽.

12)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한나래, 2004), 300-302쪽.

13) 李文基, 「高句麗 莫離支의 官制的 性格과 機能」, 『白山學報』 55(2000), 93-95쪽.

최근에는 이러한 견해위에 영류왕대 정국주도권의 변화양상을 검토하며 영류왕과 연씨세력이 협력에서 대립관계로 나아갔다고 보는 연구도 나왔다.<sup>14)</sup>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영류왕대 고구려 정국과 대당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열개는 마련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검토해 볼 문제도 있다. 먼저, 영류왕대 고구려 정국에 대한 새로운 견해도 엿보이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귀족연립정권이라는 틀 속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고구려 국정은 귀족들 간 합의·조정을 거쳐 대대로를 선임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치운영을 유지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역관계에 따른 대대로의 지위 및 성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고정화시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sup>15)</sup>

다음으로 돌궐이나 설연타와 같은 서북방제국의 존재가 고구려의 대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부족하였다.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서북방제국과 중원왕조의 길항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접해 있는 고구려에게 대륙정세의 변동은 대외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는 고구려의 대당관계뿐만 아니라 서북방제국과 고구려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영류왕대 정국주도세력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이어 당의 대외정책과 연동한 서북방정세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영류왕대 고구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대응양상과 변화과정을 세분화 하여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영류왕대 고구려 안팎의 모순관계가 어떻게 수렴되어 갔는지 알아보겠다.

## II. 榮留王代 政局主導勢力과 大對盧

『三國史記』 영양왕조에는 25년부터 29년 사이 기록이 누락된 가운데

14) 선봉조, 「淵蓋蘇文 政變의 發生背景과 動因」, 韓國學中央研究院 碩士學位論文(2008), 23-36쪽.

15) 신라 귀족회의 의장으로서 '上大等'의 정치적 입지가 왕권과 귀족 간의 역관계에 따라 달라졌다고 파악한 李基白의 연구(「上大等考」, 『歷史學報』 19(1962))는 대대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 크다.

618년 9월 영양왕이 죽었음을 전한다. 이어 이복동생 建武가 27대 영류왕으로 즉위하였다. 부자상속제가 확립<sup>16)</sup>되기 시작한 고국천왕대부터 영양왕대까지 형제상속이 이루어진 예로는 故國川王과 山上王, 小獸林王과 故國壤王, 安臧王과 安原王이 있다. 이 경우 찬자는 無子·無嗣·無嗣子라고 밝혀놓았다. 그런데 영양왕과 영류왕대만은 이러한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을 주목한 임기환은 영류왕 2년 왕이 일본에 행차하여 시조묘에 제사 지낸 사실을 연관시켜 그의 즉위에 국내계 귀족세력의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sup>17)</sup> 이도학은 대수강경귀족들에 의해 영양왕이 제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18)</sup> 전자는 영류왕이 대외온건노선을 견지하는 국내계 세력의 지지를 얻었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대수강경귀족들의 이해관계와 영류왕의利害가 합치하였기에 즉위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류왕의 즉위문제와 관련해서는 명분적인 측면에서 高·隋戰爭에 대한 평가, 주도세력의 변화양상, 대외정책 등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대외정책은 뒤에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앞의 두 문제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다. 먼저, 高·隋戰爭에 대한 고구려 조정에서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이와 관련해 아래 기록을 살펴보자.

- a. “26年(618) 가을 8월 癸酉 朔 고려가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수 양제가 30만 군대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공격하였으나 도리어 패하였다. 그런 까닭에 포로 貞公·普通 두 사람과 鼓吹弩拋石 등 10가지 물건과 토산물·駱駝 한 필을 보낸다’고 하였다”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영양왕이 죽기 얼마 전 왜에 사신을 파견했던 것으로 보이며 對隋戰爭을 승리로 이끈 데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이는 승리기념으로 세운 京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高·隋戰爭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영양왕에게 전쟁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16) 李基白, 「高句麗 王妃族考」, 『震檀學報』 20(1959);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일조각, 1996), 78-84쪽.

17) 임기환, 「6-7世紀 高句麗 政治勢力的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1992); 앞의 책(2004), 300-301쪽.

18) 이도학, 「高句麗의 內紛과 內戰」, 『高句麗研究』 24(학연문화사, 2006), 29-30쪽.

그러면 영류왕대 정국주도세력은 누구였을까? 여기서는 연개소문의 출생년<sup>19)</sup>과 막리지의 승급년을 기준으로 영류왕대 활동했던 주요한 인물들을 추려내 보겠다. 먼저 연개소문의 출생과 관련해 『三國遺事』所在 『高麗古記』에 따르면, 고구려원정에 실패한 수 양제의 원한을 갚기 위해 羊晝이란 자가 高麗에 태어났으며 그가 연개소문임을 전하고 있다.<sup>20)</sup> 『高麗古記』에 보이는 수 양제의 高麗 遠征과 이로 인해 수나라가 멸망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羊晝이란 이름은 다른 사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이홍직의 지적처럼, 蓋蘇文의 이름을 蓋金이라고 부른 데서 蓋를姓과 같이 보고 이를 羊晝의 2字로 풀어내었기 때문일 것이다.<sup>21)</sup>

그런데 이 기록은 고구려가 연개소문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수 양제의 사망과 연개소문의 출생을 연관시켜 보고 있다. 물론 작자가 설정한 양자의 인과관계는 믿기 어렵지만 수 양제의 사망(618)과 연개소문의 출생시점이 비슷한 데 착안하여 이러한 설화가 구성된 것으로 보아 무리는 없을 듯싶다.<sup>22)</sup> 이는 연개소문의 출생년 하한을 정하는 데 하나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런데 일연은 각주로 別記하여 羊晝이 甲戌年(614)에 죽어 高麗에 다시 태어났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기록을 토대로 짐작해 보면 614년에서 618년 사이 연개소문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다음으로 막리지의 승급년을 살펴보자. 이와 관련해서는 연남생이나 연남산의 묘지명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단, 연개소문 집권기이므로 近親政治가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에 승진 역시 정상적인 것보다 좀 더 빨랐을 가능성이 있다. 연남생은 9세에 先人, 15세에 中裏大兄, 23세에 中裏位頭大兄, 24세에 將軍을 제수받았고 28세에 莫離支, 32세에 太莫離支

19) 리승혁은 연남생의 출생년도(634)를 고려하여 610년경으로 추정하였다(「고구려의 《막리지》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5-1(1985), 21쪽). 김용만은 연개소문 후손들의 출생년도와 고구려왕들이 첫아들을 얻었던 나이 등을 검토하여 대략 615년을 출생기 준년으로 잡았다(『새로 쓰는 연개소문 傳』(바다출판사, 2003), 22쪽). 선봉조도 연씨묘지명과 『三國遺事』 소개 羊晝說話를 통해 615년 전후를 출생시점으로 잡았다(앞의 논문(2008), 7-8쪽).

20) 『三國遺事』 卷3 興法 第3 寶藏奉老 普德移庵條.

21) 이홍직, 「『高麗秘記』考」, 『歷史學報』 17·18(1962), 342쪽.

22) 이강래는 당 태종을 패퇴시킨 연개소문의 영웅성과 중국에 맞선 고구려의 위용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민중적 상상력이 낳은 산물이라고 보았다(「한·중사서에 보이는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 기록 비교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15(2007), 263-268쪽).

에 올랐다. 연남산은 18세에 大兄, 21세에 中裏大活, 23세에 位頭大兄, 30세에 太夫莫離支가 되었다.<sup>23)</sup> 모두 20대 후반에 막리지로 승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로 막리지로의 승급년은 30세 전후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b-① 公의 姓은 泉이며 諱는 男生이고 字는 元德으로 遼東郡 平壤城 사람이다. … 曾祖父는 子遊이며 祖父는 太祚로서 太夫莫離支를 역임하였고 父 蓋은 太夫對盧였었는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죄를 잘 부리고 활을 잘 쏘아 軍權을 아울러 쥐고 모두 나라의 권세를 오로지 하였다… (泉男生 墓誌銘).

② 公의 이름은 慈이고 字는 智捷으로 朝鮮人이다. 先祖가 朱蒙王을 따라 해동의 오랑캐를 평정하여 高麗國을 건설한 이후 대대로 公侯宰相이 되었다. … 曾祖父 式은 本蕃에서 二品莫離支에 등용되어 홀로 국정을 맡아 지위는 매우 막중하고 임무는 機謀 있는 일을 관장하여 邦國이 공평무사하였으니 그 높음은 비길 바가 없었다. 祖父 量은 三品 柵城都督位頭大兄에 등용되었고 大相을 겸했다. 어려서는 父祖 전래의 家業을 계승했으며 장성하여서는 국가정영에 참여하여 方鎮의 영수가 되었고 屬城의 모범이 되었다. 父 文은 本蕃에서 삼품 位頭大兄이 되었고 將軍을 겸했다. 고구려 멸망을 예견하고 형제를 이끌고 귀속했다… (高慈 墓誌銘).

연개소문의 출생년(614-618)과 막리지의 승급년을 기준으로 보면, 高慈(665-697)의 증조인 高式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영류왕대 주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高量은 62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며, 주로 활동한 시기는 보장왕대로 볼 수 있다. 연남생(634-679)의 증조인 淵子游는 평원왕대와 영양왕대, 조부인 淵太祚는 영양왕대 태어나 영류왕대 활동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고구려 최고귀족가문 출신이다.

그러면 이들 인물들의 대체적인 출생년을 추정해 보자. 연개소문 출생년을 614년으로 보고 한 세대를 20년 정도로 잡으면,<sup>24)</sup> 연자유는 574년 전후, 연태조는 594년 전후로 짐작할 수 있다. 고식은 605년 전후로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막리지 승급년을 30세 정도로

23)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 고구려·백제·낙랑편』(가락국사적 개발연구원, 1992).

24)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 계산하였다. 다만, 김용만과 선봉조의 경우 20년을 한 세대로 잡아 계산하였다. 세대기준년의 차이는 3대만 지나도 30년의 오차를 낳는다. 이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한 세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고구려 정국에 대한 이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불 때, 연자유는 604년 전후, 연태조는 624년 전후, 고식은 635년 무렵, 막리지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본다면, 영류왕 전기(618-626) 국정운영의 담당자로 연자유를, 영류왕 후기(626-642)는 연태조와 고식으로 나눌 수 있다.

표1-莫離支 就任 人物表

姓名	出沒年	莫離支 初任年	莫離支로 活動한 王代	出典
淵子遊	574?-?	604?	嬰陽王·榮留王 前期(추정)	泉男生 墓誌銘
淵太祚	594?-?	624?	榮留王 後期(추정)	泉男生 墓誌銘
淵蓋蘇文	614?-665	642	寶藏王	『三國史記』
淵男生	634-679	661	寶藏王	泉男生 墓誌銘
淵男建	636?-?	666	寶藏王	『三國史記』
淵男產	639-701	668 <sup>25)</sup>	寶藏王	泉男產 墓誌銘
高式	605?-?	635?	榮留王 後期(추정)	高慈 墓誌銘

이를 통해 보면, 영양왕과 영류왕대 주도세력이 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영류왕과 淵氏家를 처음부터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오히려 협조적인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왕권과 淵氏家의 협조적인 관계는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전남산 묘지명에는 그의 '고조와 증조가 中裏의 뛰어난 지위를 이었고 조부와 부친은 對盧의 큰 이름을 전하였다'고 한다. 中裏가 국왕의 근시직이라는 견해<sup>26)</sup>를 참고한다면, 淵氏家는 왕권과 밀착한 세력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조부와 부친이 '대로'의 큰 이름을 전했다는 것은 淵氏家가 귀족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력가문임을 말해준다. 실제 사료상에서도 연태조와 연개소문이 대대로를 지냈음을 전하고 있다.

둘째, 『高麗古記』에는 연개소문과 관련한 설화를 전하면서 '聰明하고 神武하사, 당시 武陽王이 어질다는 소식을 듣고 (연개소문을) 불러 신하로 삼았다고 하였다.<sup>27)</sup> 설화적 요소가 가미되었지만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25) 太々莫離支.

26) 金哲埜,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韓國古代社會研究』(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258쪽; 武田幸男,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學生社, 1980), 56-57쪽.

27) 『三國遺事』卷3 寶藏奉老 普德移庵條.

셋째, 대대로와 관련한 사료는 새롭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학계에서는 귀족연립정권의 유력한 근거로 대대로 임명과 관련한 귀족들 사이 다툼을 주목하였다. 즉 대대로 임명은 고구려의 최고관등이자 관직으로서 왕과 관계없이 귀족들 간 역관계에 따라 합의·조정되는 것으로 파악해 왔다. 이렇게 선출된 대대로는 고구려 국정을 주도할 뿐 아니라 귀족회의의 의장으로서 귀족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역관계에 따른 대대로의 지위 및 성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성격으로 고정화시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개소문의 아버지인 연태조를 주목해 보자. 현재까지 알려진 사료를 통해 볼 때, 그는 막리지와 대대로,<sup>28)</sup> 두 직책을 모두 역임한 인물이다. 막리지를 국왕의 근시직으로 이해<sup>29)</sup>한다면 그는 왕권을 대변하는 역할을 주요한 임무로 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그가 최후로 맡았던 관직은 대대로이다. 이렇게 보면, 연태조는 왕실의 대변자에서 귀족들의 대변자로 변모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정치적 관계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연태조가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었던 데는 왕실과의 관련성을 빼놓고는 말하기 어렵다. 641년 진대덕이 答使로 고구려에 왔을 때, 高昌이 멸망한 소식을 듣고 세 번이나 使邸를 찾아온 대대로는 바로 연태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대대로가 갖는 성격은 귀족연립정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면 왕실과 협조관계에 있던 연씨가문이 연개소문대에 이르러 정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는 고구려의 대당관계를 검토하면서 살펴보겠다.

### III. 榮留王 前期의 對唐關係와 東突厥

영류왕 전기 고구려의 대당관계는 使臣派遣(619), 流人送還(622), 冊封(624), 稱臣問題(625) 등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표에서

28) 『新唐書』(中華書局 點校本) 卷220 高麗, “有蓋蘇文者… 父爲東部大人對盧死 蓋蘇文當嗣 國人惡之…”; 「泉男產 墓誌銘」, “君諱男產 遼東朝鮮人也… 乃高乃曾 繼中裏之顯位 惟祖惟禰 傳對盧之大名.” 한편, 연태조의 대대로 역임을 부정하는 견해(노태돈, 『고구려사 연구』(사계절, 1999), 468-469쪽 각주 77; 임기환, 앞의 책(2004), 294-297쪽)도 있다.

29) 이문기, 앞의 논문(2000).

보듯, 고구려는 629년까지 줄곧 사신을 보내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시기마다 일어난 주요한 사건을 통해 양국관계가 어떻게 나아갔는지 검토해 보겠다.

표2-榮留王代 三國의 對唐遣使表

年度	王朝	高句麗	百濟	新羅
618				
619		←2		
620				
621		←7	←10	→ ←7
622		←		
623		←12		←10
624	一册	←1, 12	一册 ←1, 5, 7, 9	3→册
625		←	←11	←11
626	→	←12	→ ←?, 12	→ ←7
627		←	←8	←6, 11
628		←9		
629		←9	←9	←9
630				
631			←9	←7
632			←12 <sup>30)</sup>	→ ←12
633				←7
634				
635			←11	→
636			←2	
637			←12	
638				
639		←	←10 <sup>31)</sup>	←
640		←12	←2	←5
641	→		→ ←5, 8	
642	→	←1	←1	←1, 8

주: 1. 『三國史記』, 『舊唐書』, 『冊府元龜』  
 2. →: 당의 건사, ←: 삼국의 건사, 숫자: 月

30)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朝貢3 貞觀6年條에는 11월 백제가 신라가 조공한 것으로 나온다. 『三國史記』 해당년도에는 12월로 나온다.

31) 『舊唐書』(中華書局 點校本) 卷3 太宗 貞觀12年(638) 10월조에 백제가 金甲雕斧를 바친 기사가 있다. 그런데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朝貢3 貞觀13年(639) 10월조와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武王 40年(639)條에 해당기사가 나온다. 『冊府元龜』를 따른다.

고구려는 619년 아직 일개 군웅세력에 불과한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위협을 무릅쓰고 수천 리나 떨어진 장안으로 사신을 보낸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고구려가 수많은 군웅세력 가운데 당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李淵이 留水로 있었던 太原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617년 7월 이연은 태원유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3만의 군사를 이끌고 長安을 장악한 뒤, 11월 9일 代王 侑를 恭帝로 옹립하였다.<sup>32)</sup> 이어 618년 5월 20일 恭帝로부터 선양을 받아 황제자리에 올랐다. 이로써 唐은 隋를 대신한다는 명분을 획득하였다. 고구려는 명분과 실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당을 주목하고 화친을 통한 관계개선을 위해 사신을 보낸 듯하다. 고구려의 使行에 高祖는 詔書를 내리며 흡족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 c. “강역 산천은 그 안팎으로 나뉘어 限하니, 멀고 荒僻한 절역의 刑法과 政令이 中原과 다르다. 이로써 옛 왕들은 천하를 다스리매, 遠人(외국인)을 翫유하는 羈縻에 뜻을 두었으며 신속시키려 함은 없었다. 渠搜는 곧 하후씨의 功이름을 敍表하고 荒遠의 땅, 越裳은 周나라의 유구함을 부러워하였다. 隋末, 잇따른 천자의 거병으로 河源이 고달프고 3년간 요위원정으로 원망을 불렀으니 연이는 화로 힘을 굽히고 재물은 다하였다. 짐이 삼가 皇位를 받들어 사방을 진무하였다. 근래 앞서 폐단을 고쳐 번국들과 마땅히 화친하고자 하였다. 토욕혼은 이미 직공을 다하였고 고구려는 멀리서 정성을 다하여 보냈다. 거란과 말갈은 모두 內附를 원하였다. 이로써 오래도록 이치에 맞도록 진무하였으며 마땅히 사신들에게 好睦하도록 명을 내려 난을 다스리고 백성을 쉬게 하려 한다. 이에 천하에 포고하여 짐의 뜻을 분명하게 알도록 할 것이다.” (『唐代詔令集』 卷128 綏撫武德2年2月, 撫鎮夷狄詔)

조서에서는 고조가 招撫와 懷柔를 통해 주변국이 內附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설명하지만 唐 역시 화친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吐谷渾은 군웅세력인 李軌와 連和하고 있었으며 동돌궐은 당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었다. 583년 동·서돌궐 분열로 동돌궐은 한때 수나라에 복속되기도 했지만 隋末唐初 각지에서 봉기한 군웅들은 니나할 것 없이 동돌궐에 신속하였다.<sup>33)</sup> 당 고조도 건국 초에는 동돌궐에 稱臣하며 눈치를 살펴야 했다. 따라서 고조도 화친을 통한 고구려와의 관계개선을

32) 布目潮瀾·栗原益男, 『中國の歴史-隋唐帝國』(講談社, 1974), 52쪽.

33) 『新唐書』 卷215上 突厥, 6,028쪽.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사절을 통해 교류를 튼 가운데 622년 당 고조는 隋末 고구려로 넘어간 華인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d. 朕이 天命(寶命)을 공손하게 받들어 천하(率土)에 군림하며, 三靈에 삼가 순응하고 萬國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하고 있소. 천하를 고르게 사랑하고 어루만지며 日月이 비치는 곳은 모두 편안하게 하였소. 왕(영류왕)은 이미 遼左를 통섭하며 대대로 藩服으로 있으며 正朔을 받고자 멀리서 職貢을 따르고 있소이다. 그런 까닭에 使者를 보내어 山을 넘고 川을 건너 誠懇을 펼치니 짐이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 비야흐로 지금 六畜이 편안하고 四海가 淸平하며 玉帛은 이미 통하고 도로는 막힘이 없소이다. 모쪼록 화목을 펴고 오래도록 聘好를 돈독히 하여 각기 疆場을 보존하니 어찌 매우 아름답지 않겠소. 다만 隋氏 말년, 연이은 전쟁으로 싸움터마다 각기 그 백성을 잃었소이다. 끝내 骨肉을 이별하고 집안은 뿔뿔이 흩어져 지내지 여러 해가 지나 怨曠은 풀지 못하였소. 지금 두 나라가 通和하여 阻異할 뜻이 없으니, 이곳에 있는 高麗人들은 찾는 대로 곧 보내기로 하였소. 그곳에 있는 이 나라 사람들도 왕이 돌려보내주되, 撫育의 방법을 힘써 다하여 함께 仁恕의 道를 넓혀갑시다. (『舊唐書』 卷199上 高麗)

유인송환문제에서 주목할 점은 송환 시점과 송환요구 배경, 조서에 나타난 고조의 대고구려인식부분이다. 먼저, 송환요구 시점이 622년인 까닭은 무엇인가? 고조가 유인송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아래는 당의 군웅진압과 관련한 내용이다.

당은 먼저 隴右道·關內道·河西道<sup>34)</sup> 등 돌궐과 연계된 지역의 군웅세력을 진압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어 河北道 및 江南道 등으로 눈을 돌렸다. 620년 11월 당시 중원은 대체로 關內지역은 唐, 河南은 王世充의 鄭, 河北은 竇建德의 夏, 삼국이 鼎峙하고 있었다.<sup>35)</sup> 물론 허북지역에는 일부 잔당들이 남아 활동하였고 624년 무렵 진압되었지만 큰 위협은 되지 않았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621년 돌궐계집단의 내속 이후 622년 무렵부터 말갈의 상시적인 入貢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은 621년 來附한 突地稽와 契丹人 孫敖曹 등을 영주성 근처에 안치함으로써 영주방면의 경영에 힘을 기울였다.<sup>36)</sup> 이로써 유인을 송환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였다.

34) 州郡의 행정체계를 10道로 개편한 것은 627년 당태종대(『舊唐書』 卷38 地理1, 1,384쪽)였다. 그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 편의상 10道 명칭을 사용하였다.

35) 『舊唐書』 卷54 竇建德, 2,240쪽.

36) 野開三郎, 앞의 책(1991), 242-243쪽.

표3-唐 高祖·太宗代 主要群雄鎮壓表

群雄者名	蜂起한 해	鎮壓된 해	鎮壓結果	唐의 措置(設置)	突厥과 連繫
薛舉·薛仁果	614년 무렵	618. 11	投降	隴右道(秦·鄯·蘭州)	○
李軌	617년 무렵	619. 4	被殺	關內道(西會州), 隴右道(河州), 河西道(涼·甘州)	○
杜伏威	612년 무렵	620. 6	投降	淮南道(揚·滁·和·壽州), 江南東道(潤·常州), 江南西道(宣州)	
劉武周	615년 무렵	620. 7	被殺	河東道(蔚·東會·北恆州)	○
沈法興	618	620	客死	江南東道 일부 平定	
竇建德	616년 무렵	621. 5	被殺	河北道(黎·魏·博·貝·洛·廉·深·德·定·易·瀛·北義州)	○
王世充	619. 4	621. 5	投降	河南道(洛·鄭·伊·許·汴·豫·滑·毫·信·宋·徐州), 山南東道(襄州), 淮南道(安州)	
李子通	隋末	621. 11	投降	江南東道(蘇·湖·杭·越·海·婺·衢·括州)	
劉黑闥 (竇建德잔당)	621. 7	623	被殺	河北道(景州)	○
高開道	617년 무렵	624. 2	自殺	河北道(媯州)	○
輔公祏 (杜伏威잔당)	612년 무렵	624. 3	被殺	江南東道(潤·常·蘇·湖·杭·台州) 西道(宣州)	
徐圓朗 (兗州總管)	621. 8	624. 5	被殺	河南道(鄆·兗·沂州)	
梁師都	617년 무렵	628. 4	被殺	關內道(銀·夏·鹽·勝州)	○

주: 『舊唐書』

그러면 유인문제를 제기한 까닭은 무엇인가?<sup>37)</sup> 隋代 大業 2年(606) 戶數는 890만 7,536, 口數는 4,601만 9,956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唐初가 되면 호수는 크게 감소하여 657년 中書令 杜正倫이 주청한 바에 따르면 武德年間(618-626)의 호수는 겨우 200여만 호라고 한다.<sup>38)</sup> 이는 隋末 戰亂으로 인한 流亡과 당조의 통치력이 공고하지 못한 가운데 호적에 편제되지 않은 逃戶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9)</sup> 고조는 621년 9월 戶口를 조사하라는 詔를 내렸다.<sup>40)</sup> 622년 고조의

37) 서병국은 실추된 중국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中國人の 高句麗 流亡과 遼東開墾」, 『白山學報』 34(1987), 17쪽). 拜根興은 호구증가에 따른 세금증가 등 경제적 문제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였다(「激動의 50年-高句麗와 唐 關係 研究」, 『高句麗研究』 14(2002), 419-420쪽).

38) 『通典』 卷7 食貨7 歷代盛衰戶口條.

39) 박춘택, 「唐代 逃戶의 발생원인과 그 영향」, 『中國史研究』 2(1997), 5-6쪽.

40) 『資治通鑑』 卷189 武德4年 9月, 「己卯 詔括天下戶口.」

유인송환요구도 호구조사의 일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되찾아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민심 등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또한 군웅세력을 진압함으로써 중원이 안정되어 간다는 점과 유인송환을 통해 중원을 대표하는 세력이 바로 당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인문제는 당 고조의 대고구려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고조는 조서에서 강역의 보존과 화해를 모색하였다. '이는 고구려 지역이 중국 군현이었다며 정벌을 추진했던 수 양제의 인식과 차이를 보여준다.'<sup>41)</sup> 더욱이 양국을 彼此로 구분하여 '仁恕의 道'를 함께 넓히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강역을 지킬 뿐 굳이 고구려의 질서에 개입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인송환에 대한 고구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당시 流人은 전후처리과정에서 상당수가 論功行賞을 통해 유력귀족이나 기타 관공서 등으로 예속되었을 것이다. 영류왕 입장에서도 유인송환은 대외적으로 對隋問題를 털어버리고 대당관계 정상화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대내적으로는 高麗人의 송환을 통해 이반된 민심을 수습할 수 있으며 귀족들에게 예속된 민들이 아니라면 호구조사를 통한 경제적 이득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세력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이미 전쟁을 통해 경제적·군사적 타격을 입었던 상황에서 귀족들에게 賜與되었던 流人들도 송환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유인문제가 제기되고 오래지 않아 만여 명에 이르는 유인들이 당으로 보내졌다. 유인송환이 비교적 순조로웠던 데는 영류왕과 귀족들 간 타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당 고조가 高麗人의 송환을 약속하였다는 점, 훗날 陳大德이 사신으로 왔을 때, 여전히 많은 華인들이 곳곳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일부에 한해 송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도 내부적으로 안정을 되찾자, 624년 고구려를 책봉하였다.<sup>42)</sup> 對隋問

41) 여호규, 「책봉호 수수(授受)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2006), 47쪽.

42) 『資治通鑑』 卷190 高祖 武德7年, “正月丁未 高麗王建遣使來請班曆 遣使册建武爲遼東郡王高麗王.” 金子修一은 책봉호를 王號와 郡王號로 구분하여 전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민족에, 후자는 내속한 이민족에 주는 것으로 보았다. 삼국은 두 왕호가

題를 둘러싸고 꺾끄럽던 양국관계는 책봉을 통해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해 당은 고구려에 天尊像 및 道士를 보내어 老子에 대해 講하였는데 영류왕을 비롯해 수천 명이 이를 보고 들었다.<sup>43)</sup> ‘당 황실에서는 老子가 先朝로 인식되었으며 궁중 의식에서도 道士를 僧侶보다 앞세우는 등 도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이는 唐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도교세력과 정치적 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sup>44)</sup> 이듬해 당에 佛敎·道敎를 구하는 것<sup>45)</sup>으로 보아 이러한 도교의 수입에 왕실이 앞장섰던 것으로 보인다.<sup>46)</sup>

책봉이란 외교로 양국관계는 덧씌워졌지만 이것이 실질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책봉된 지 1년이 조금 지나 당 고조가 직접 문제삼았던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 e. 당시 高麗가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高祖가 群臣들에게 이르기를, “名과 實 사이에는 모름지기 理致가 서로 따라야 한다. 高麗는 隋에 稱臣하면서 끝내는 煬帝를 거역하였으니 이 또한 무슨 신하이겠는가? 朕은 만물의 공경을 받아 驕貴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다만 土宇에 있으면서 힘써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뿐, 어찌 반드시 稱臣을 명령하여 스스로 존대하고자 하겠는가? 곧 詔를 내려 짐의 이 뜻을 서술토록 할 것이다.” 彦博이 나아가 이르기를, “遼東의 땅은 周代 箕子의 나라이며 漢家의 玄菟郡입니다. 魏·晉 이전, 강역(提封) 안에 가까이 있었으니 不臣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高麗와 抗禮하신다면 어찌 四夷가 우러르며 따르겠습니까? 또한 中國의 夷狄에 대한 관계는 太陽과 列星에 비유함과 같으니 이치상 존엄함을 낮추어 夷貊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高祖가 이에 그만두었다. (『舊唐書』 卷61 溫彦博)

함께 보이는데 이는 중국과 삼국 사이 책봉관계의 오랜 역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隋唐의國際秩序と東アジア』(名著刊行會, 2001), 119-120쪽). 이성규는 삼국 왕의 관자에 소멸된 옛 郡의 郡公·郡王을 포함시킨 것은 삼국 왕을 형식상 중국의 內臣으로 설정하여 그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재확인하면서 신속을 요구한 의미로 해석하였다(「中國 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2003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학술대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12. 15, 21-22쪽). 한편, 여호규는 本國王號를 포함한 책봉호를 수여한 것은 삼국을 당의 경역 바깥에 존재하는 국가로 인정했음을 뜻하며 삼국을 대등하게 인정한 상태에서 현상유지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위의 논문(2006), 52쪽).

43) 『舊唐書』 卷199上 高麗, 5,321쪽.

44) 窪 德忠, 『道敎史』(山川出版社, 1977), 219-228쪽.

45)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榮留王 8年, “王遣人入唐 求學佛老敎法 帝許之.”

46) 이만열은 624년 당의 道士파견은 고구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훗날 연계소문이 도교진흥을 건의하는 것으로 보아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高句麗 思想政策에 대한 몇 가지 檢討」, 『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探求堂, 1971), 29-30쪽).

위 기록은 625년 3월 11일 고조가 군신들과 나누었던 내용이다.<sup>47)</sup> 여기서 고조는 명분과 실제의 괴리감을 토로하며 고구려와 抗禮하려 하였다. 고조가 이런 발언을 한 까닭은 무엇인가? 624년부터 625년 사이는 당의 대외정책에서 변화가 엿보이는 시기이다. 624년 무렵, 당은 群雄세력 대부분을 진압함으로써 대외문제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 해에 당에서는 遷都를 둘러싼 중요한 논의가 있었다. 돌궐의 잦은 침입으로 관중이 불안하자, 태자 건성과 제왕 원길을 중심으로 천도에 찬성을 표하였고 고조는 장소를 몰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왕 이세민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sup>48)</sup> 겉으로는 천도논의에 대한 의견조율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대외정책과 권력장악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함께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천도논의에 뒤이어 稱臣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고조의 발언에 온언박은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하였다. 결국 고조는 온언박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혼선을 빚던 정책도 군신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해 나가게 되었다.

당은 이후 수모를 안겨준 동돌궐<sup>49)</sup>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625년 돌궐과 토욕혼의 互市貿易 개설을 허락하고 서돌궐과 화친함으로써 동돌궐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전까지 돌궐을 적국의 예<sup>50)</sup>로 書用하였지만 고조는 앞으로 書가 아닌 詔勅을 쓰겠다고 신하들에게 공표하였다.<sup>51)</sup> 詔勅을 쓰겠다는 것은 ‘詔書와 勅書를 수령하는 자는 臣僚라고 하는 인식을 당 고조가 가지고 있음을 말하며 書에서 詔書·勅書로의 전환은 당의 입장에서 대등관계에서 군신관계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sup>52)</sup> 곧 당은 ‘名’과 ‘實’이 부합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47) 『唐會要』卷95 高句麗. 『通典』卷186 邊防2 東夷下 高句麗傳에는 625년 3월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冊府元龜』卷990 外臣部 備禦3 武德8年(1만 1,634쪽)조에 보면, 625년 5월 己酉로 나온다.

48) 『資治通鑑』卷191 高祖 武德7年.

49) 『舊唐書』卷194上, 5,154-5,155쪽.

50) 護雅夫는 頡利可汗이 雁門을 공격하다 李大恩에게 패하면서 高祖에게 和好를 요청(『舊唐書』卷194上, 5,155쪽)한 621년을 당이 돌궐에 대한 稱臣의 자세에서 벗어나 敵國(對等)關係로 올라선 시기로 주목하였다(『隋·唐とチユルク國家』, 『古代史講座』10(學生社, 1964), 95-96쪽).

51) 『資治通鑑』卷191 高祖 武德8年.

52) 中村裕一, 『隋唐王言の研究』(汲古書院, 2003), 257쪽.

표4-遼海諸族의 對唐關係表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靺鞨	1				10	◀	內	11		7		4		2內
契丹	1				◀	◀	內	◀	6	2				4內
室韋														
奚						◀								
靺						◀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靺鞨	11		11	11		4							◀	
契丹	1·11		11	6·8	1									
室韋	●		7·11	11		4	9							
奚	9		11	8	1								◀	
靺	●		10										◀	

주: 1. 『隋書』 『舊唐書』 『冊府元龜』 『資治通鑑』 참고

2. ◀: 공격, ●: 파견月 不明. 內: 內屬, 숫자: 파견 月

동돌궐문제는 고구려와 당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 표는 요해제족의 대당관계를 정리해 본 것이다. 여기서 두드러진 사실은 당이 군웅세력을 제압하면서 안정을 되찾는 과정과 맞물려 요해제족이 당으로 입조하는 횟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요해지역에 위치한 각 부족은 부락별 자립적 성격이 강하여 수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각각 특정국가와 관계를 맺었다. 예를 들어 동돌궐에 예속된 말갈 일부집단은 당을 공격하고 있으나 突地稽는 隋末 내속하여 隋 煬帝로부터 요서태수를 세수받았고 武德 연간에는 당에 협조하며 군웅세력을 진압하는 데 앞장서 이씨를 賜姓받았다.<sup>53)</sup> 이러한 부락별 개별·분산적 이합집산은 점차 요해지역에서 역관계가 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예전 평원왕·영양왕대 고구려와 동돌궐은 수의 요해지역 침투를 계기로 화해를 모색하였다.<sup>54)</sup> 하지만 고구려원정 실패로 수가 내란에 접어들자, 동돌궐은 세력을 키웠으며 결국 수말당초 군웅세력으로부터 稱臣을 받는 등 그 세력은 더욱 확장되었다. 당을 압도하고 있던 동돌궐의 입장에서 굳이 고구려와 연화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동돌궐이 요해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고구려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은

53) 『舊唐書』 卷199下 靺鞨, 5,358-5,359쪽.

54) 김진한, 「평원왕대 고구려의 대외관계」, 『국학연구』 11(2007), 234-245쪽; 김진한, 「嬰陽王代 高句麗의 政局動向과 對唐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3(2009).

점점 커져갔다.<sup>55)</sup>

고구려는 대수전쟁으로 인한 내정수습이 급선무였던 만큼 요해지역에 뺨치는 동돌궐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 동돌궐이 위세를 떨치는 동안(618-626) 고구려가 당과 우호관계를 맺는데 적극적이었던 점이나 당의 요해지역 세력 침투가 용이했던 이면에는 이러한 역관계 변화에서도 그 까닭을 찾을 수 있다. 628년 당 태종이 힐리가한을 격파하자, 고구려가 축하사절을 파견한 이유 중 하나는 동돌궐을 견제하고자 했던 고구려의 속내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 IV. 榮留王 後期の 對唐關係와 薛延陀

영류왕 후기 고구려의 대당관계는 사신파견 유무를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는 당 태종이 즉위한 626년부터 629년까지로 대당관계의 변화가 모색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630년부터 638년까지로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639년부터 연개소문 정변이 일어나는 642년까지로 외교교섭이 재개되었다. 아래에서는 서북방정세의 동향을 염두에 두면서 각 시기별 고구려 대당관계의 변화과정과 대응양상을 살펴보겠다.

당과 돌궐 사이 긴장관계가 고조되어 가던 626년 6월 4일 이세민은 ‘玄武門의 變’을 일으켜 황태자 建成과 아우 元吉을 제거하였으며<sup>56)</sup> 2개월 뒤인 626년 8월 고조로부터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당 태종이 즉위한 그해, 신라와 백제는 사신을 보내 고려가 길을 막아 입조할 수 없다며 호소하였다. 태종은 두 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朱子奢를 파견하였고 고구려는 곧 사신을 보내어 謝罪를 표명하며 신라사신과의 회맹을 요청하였다.<sup>57)</sup>

한편, 신라는 627년 백제로부터 침입을 받아 西鄙 2성이 함락되고

55) 日野開三郎은 수말당초 말갈의 귀속을 둘러싸고 대립하였으므로 보았다(앞의 책(1991), 196쪽). 한편, 이성제는 621년부터 거란이 당에 귀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서에서의 세력관계는 당이 일찍부터 주도하였으며 고구려는 동돌궐과 연대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하였다(『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北方史論叢』 5(2005), 161쪽).

56) 石見清裕, 『玄武門의 變前夜의 突厥問題』, 『史觀』 108(1983), 41-44쪽.

57) 『舊唐書』 卷199上 高麗, 5,321쪽.

남녀 300여 명이 노획되었다. 곧장, 신라는 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무왕은 이를 듣고 627년 8월 조카 福信을 파견하였다. 이때 태종은 무왕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삼국의 사신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등 고조대와 달리 삼국의 일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東突厥問題에 매진하고 있어 삼국에 대한 간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627년 당시 동돌궐은 隸下에 있던 薛延陀·迴紇·拔也古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頡利可汗이 突利可汗을 보내어 진압케 하였으나 도리어 패하였

표5-周邊諸國의 對唐關係表(618-642)

	東突厥	西突厥	吐谷渾	高昌	吐蕃	薛延陀
618	←-2	←				
619	→ ←-2	←-2	→ ←-3	←		
620	←-4	←-2		←		
621	▶ ←-	←				
622	→▶ ←-	請婚-2	◀			
623	←-	←	◀-			
624	→ ←-	←	◀-	←		
625	▶ ←-	→ ←	◀-			
626	▶ ←-2	←-2	◀-			
627	→	→ ←-2	←	←		
628	▶ ←-	←	◀			→ ←
629	▶ ←-	←		←-2		←
630	▶		←	←		←-2
631						←
632		→ ←	◀-2			←-3
633		→ ←	←	←		←
634			▶ ←-	←-2	→ 請婚 ←-2	
635		←-3	▶ ◀		←	←-2
636		←	←-2			←
637		←	←			←
638		←	←		▶ ◀-	
639		←	←	▶ ←		→ ←-2
640			降嫁→ ←	▶	←	←
641	▶	←	▶		降嫁→ ←	▶ ◀-
642			←		←	請婚-

주: 1. 『舊唐書』, 『冊府元龜』, 『資治通鑑』 참고

2. →: 唐의 遣使, ←: 주변국의 遣使, ▶: 唐의 공격, ◀: 주변국의 공격, 숫자: 횟수

다. 힐리가한은 돌리가한을 질책하며 구류하는 등 두 가한은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다. 여기에 큰 눈까지 내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sup>58)</sup> 동돌궐에 사신으로 갔던 鄭元璠은 이러한 상황을 태종에게 보고하였다.<sup>59)</sup>

태종이 북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頡利可汗을 격파하자, 고구려는 628년 9월 사신을 파견하여 축하하며 봉역도를 올리고 있었다.<sup>60)</sup> 하지만 당이 630년 동돌궐을 공략하여 멸망시키고 '遼河 서쪽의 지배권을 쥐며 고구려와 緩衝地帶 없는 대치상태에 놓이게 되자'<sup>61)</sup> 고구려는 629년 건사를 끝으로 약 10년간 당으로의 발길을 끊었다.

당은 동돌궐을 제압한 이후 교역로 확보를 위해 西域으로 눈을 돌렸다. 당시 서역의 패권은 서돌궐과 고창, 토욕혼 등이 분점하고 있었다. 토욕혼은 당 건국 초기부터 교류가 있었다. 고조는 화친하기를 원하였고 토욕혼도 互市를 통한 무역을 희망<sup>62)</sup>하면서도 끊임없이 당의 변경을 공략하였다. 특히 토욕혼왕 伏允과 당 태종은 입조 및 혼인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당과 토욕혼의 갈등 양상은 党項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당시 당항의 제세력은 당 혹은 토욕혼에 신속하고 있었으며 당은 이들을 활용하여 토욕혼을 견제하였다.<sup>63)</sup> 635년 당의 대대적인 정벌로 복윤은 자살하고 그의 아들 順이 가한으로 추대되었고 이후 당에 稱臣內附하였다.<sup>64)</sup>

태종은 토욕혼을 정벌하는 데 公主降嫁를 활용하였다.<sup>65)</sup> 634년 무렵 토번은 당에 사신을 보내 求婚하였다.<sup>66)</sup> 태종이 허락하지 않자, 사신이 돌아와 토번왕에게 토욕혼의 이간이 있었음을 간하였다. 이에 토번은 토욕혼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뒤에 다시 청혼하였으며 우여곡절 끝에 641년 당은 문성공주를 토번에게 降嫁하였다. 당시 당과의 혼인은 자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위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58) 『舊唐書』 卷194上 突厥, 5,158쪽.

59) 『資治通鑑』 卷192 太宗 貞觀 元年.

60) 『舊唐書』 卷199上 高麗, “貞觀二年 破突厥頡利可汗 建武遣使奉賀 并上封城圖”, 5,321쪽.

61) 李龍範, 「大陸關係史-古代篇(上)」, 『白山學報』 18(1975), 63쪽.

62) 『舊唐書』 卷57 李安遠, 2,302쪽.

63) 『舊唐書』 卷198 党項羌, 5,291-5,292쪽.

64) 『舊唐書』 卷198 吐谷渾, 5,298-5,299쪽.

65) 宋台鎬, 「唐初의 異民族政策 性格考」, 『慶北史學』 13(1990), 50-52쪽.

66) 『舊唐書』 卷196上 吐蕃, 5,221쪽. 佐藤長은 토번의 혼인요청에 대해 634년 당은 토욕혼 원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후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며 태종이 降嫁를 거절하였지만 처음부터 거부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古代チベット史研究』 上卷(同朋舎, 1958), 249-250쪽).

있었다.

토욕혼을 정벌한 당 태종은 高昌遠征에 나섰다. 고창은 西域商人들이 당으로 왕래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경제적·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였다. 그런 까닭에 서돌궐의 統葉護可汗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당의 발흥에 대비하고 있었으며<sup>67)</sup>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西域諸國의 교류를 막기도 하였다. 이에 焉耆國은 632년 당 태종에게 隋末亂으로 폐쇄되었던 大磧路의 개통을 요청함으로써 직접 교류할 수 있을 길을 트고자 하였다. 그러자 고창이 언기를 공격하면서 당과 고창 관계도 악화되었다.<sup>68)</sup> 이후 당 태종은 640년 후군집을 보내어 고창을 점령하였으며 위징의 반대를 무릅쓴 채 州縣으로 편입하였다.<sup>69)</sup>

서돌궐은 唐初부터 동돌궐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으로 주목받았다. 서돌궐의 統葉護可汗도 對唐和親政策을 취하면서 西方經略에 적극적이었다.<sup>70)</sup> 이러한 당시 서돌궐의 형세에 대해서는 “控弦이 수십만으로 西域의 霸權을 차지하는 등 西戎의 盛함이 일찍이 없었다”라고 기록할<sup>71)</sup> 정도였다. 하지만 628년 통엽호가한이 살해되고 백부인 막하돌이 가한으로 즉위하면서 서돌궐은 내분에 휩싸였다. 더구나 서돌궐의 부림을 받던 西域諸國마저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그 영향은 점차 약해져갔다. 막하돌이 대패하고 살해되자, 사엽호가 대가한에 올랐다. 하지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설연타를 공격했다가 실패하였고 뒤에 내란으로 죽었다.<sup>72)</sup> 당은 이러한 내분을 이용하여 서돌궐의 속국들을 차례로 略取하였다.<sup>73)</sup> 630년대 이후 서역제국의 對唐入朝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당 태종 집권 이후 거의 끊임없이 이어지던 遼海諸族의 건사가 635년 이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이 서돌궐·토욕혼·고창과 갈등을 겪으면서 원정을 단행한 사정과 관련된다. 서역에 당이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요해지역에는 동돌궐 견제를 위해 당의 지원을 받았던 설연타가

67) 嶋崎昌, 「遊牧國家の中央アジア支配と中國王朝」, 『隋唐時代の東トウルキスタン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77), 569쪽.

68) 『舊唐書』卷198 焉耆, 5,301쪽.

69) 『舊唐書』卷198 高昌, 5,294-5,296쪽.

70) 內田吟風, 「西突厥初世史の研究」, 『北アジア史研究-突厥篇』(同朋舍, 1975), 470쪽.

71) 『舊唐書』卷194下 突厥, 5,181쪽.

72) 『舊唐書』卷194下 突厥, 5,182-5,183쪽.

73) 沙畹 著·馮承鈞 譯, 『西突厥史料』(中華書局, 2003), 240쪽.

도리어 당의 북방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 결과, 설연타가 이 지역에 세력을 뻗치면서 요해제족의 對唐遣使도 크게 제약을 받았다.<sup>74)</sup>

태종은 설연타의 세력확대를 경계하며 夷男의 두 아들을 자기 小可汗으로 책봉하여 그 분열을 꾀하고자 하였다.<sup>75)</sup> 아울러 돌궐민들을 위무하기 위해 阿史那思摩를 可汗으로 세워 막남에 둠으로써 夷男과 경쟁을 유도하였다.<sup>76)</sup> 여기에 돌궐민을 다시 막남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설연타를 견제하였다. 태종이 돌궐민을 이주시킨 데는 639년 4월 九成宮을 從幸하던 中郎將 阿史那結社率이 태종암살을 기도하였기 때문이다.<sup>77)</sup> 이때 태종은 돌궐집단을 통솔할 인물로 일찍이 당으로 귀부한 阿史那思摩를 선택하였다. 阿史那思摩(583-647)는 可汗의 계승권을 가진 지배집단출신이었지만 아사나씨가계가 분화되면서 他鉢可汗계열인 그의 집안은 乙息記可汗계열에 밀려 정치적으로 소외받았다.<sup>78)</sup>

그러나 전체 돌궐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마를 내세웠던 점이나 막남으로 보내어 설연타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은 태종의 以夷制夷 전략이었다. 641년 夷男은 막북을 지배하기 위해 思摩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처음 설연타가 우세를 점하였지만 당의 공격에 무너졌다. 642년 태종은 설연타에 대한 대책으로 降嫁를 활용하였다. 즉 당은 적극적인 원정과 降嫁정책, 내분 조장 등을 통해 서역 및 요해지역으로 진출해 갔다.

당이 서북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고구려는 당의 대외팽창정책을 주시하고 있었다. 당 태종은 631년 2월 각 주에 조를 내려 경관을 헐도록 지시하였다. 그해 8월 당의 고구려 경관 파괴사건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sup>79)</sup> 이미 당의 적대정책을 감지했던 고구려는 부여성으로부터 남쪽바다에 이르기까지 1,000여 리에 이르는 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sup>80)</sup>

74) 日野開三郎이 이미 薛延陀의 세력확장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였다(앞의 책(1991), 188쪽).  
75) 『資治通鑑』卷195 太宗 貞觀12年, “薛延陀…勝兵二十萬 立其二子勃酌頡利苾主南北部 上以其彊盛恐後難制 癸亥拜其二子皆爲小可汗 各賜鼓纛 外示優崇實分其勢.”  
76) 『舊唐書』卷199下 鐵勒, 5,344쪽.  
77) 『舊唐書』卷194上 突厥, 5,161쪽.  
78) 鈴木宏節, 「突厥阿史那思摩系譜考」, 『東洋學報』 87-1(2005), 51-56쪽.  
79) 『資治通鑑』卷193 太宗, “(貞觀)五年(631)…二月 甲辰詔諸州有京觀處無問新舊 宜悉剗削加土爲墳 掩蔽枯朽 勿令暴露…秋八月甲辰遣使詣高麗 收隋氏戰亡骸骨葬而祭之.”  
80)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 榮留王 14年. “春二月 王動衆築長城 東北自扶餘城 東南至海 千有餘里 凡一十六年畢功.” 『舊唐書』高麗傳에는 당이 경관을 헐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은 것처럼 기록하였으나 선후관계에서 장성축조가

이와 함께 삼국의 모순관계를 잘 알고 있는 당에 대응하기 위해 고구려도 대남방관계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고구려는 백제 및 신라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었다. 당시 백제와 신라는 백제의 주도속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적인 충돌은 607년 松山城 전투 이후, 사료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국은 신라에 의해 한수 유역이 점유되면서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웠다. 더욱이 양국은 ‘古土’를 신라에게 빼앗겼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백제는 성왕이 전사하는 치욕을 맛보기도 했다. 이 점이 두 나라가 연화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637년 신라는 오늘날 춘천지역에 牛首州를 설치하고 군주를 두었다.<sup>81)</sup> 이곳은 북한강을 따라 곧장 한강으로 내려올 수 있는 요충지이다. 이와 함께 638년 10월 고구려군이 오늘날 파주일대에 자리한 칠중성을 공격해 왔다.<sup>82)</sup> 이를 통해 볼 때, 고구려는 신라에 대해서는 적대정책을 취하면서도 백제에 대해서는 양단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결국, 고구려는 백제를 통해 신라를 견제함으로써 남방의 안정을 꾀하려 하였다. 이는 당의 대백제·신라를 통한 고구려 견제에 대한 대응적 성격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고구려는倭로도 눈길을 돌렸다. 630년 3월 왜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그해 9월 귀국하였다. 이때 파견된 고구려 사신은 大使 婁子拔과 小使 若德이었다.<sup>83)</sup> 당시 고구려 사신의 관등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백제사신이 3·4위 관등을 지닌 恩率·德率인 것으로 미루어 고구려사신도 그에 걸맞은 大兄이나 小兄 관등을 지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이들 사신은 약 6개월을 머물러 있었고 이들이 떠난 뒤 왜는 使邸인 三韓館을 수리하였다고 한다. 양국관계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선다. 한편, 日野開三郎은 장성을 통해 말갈의 입공이 제한되었다고 보았다(앞의 책(1991), 244쪽). 이용범은 천리장성 구축은 방어목적뿐만 아니라 膨脹主義의 포기를 내외에 알리는 것으로 이해하였다(「高句麗의 膨脹主義와 中國과의 關係」,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삼지원, 1987), 201-202쪽). 여호규는 唐軍의 전략·전술변화뿐만 아니라 거란의 침공을 대비하고 말갈족의 이탈을 봉쇄하기 위해 장성을 쌓은 것으로 보았다(「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國史館論叢』 91(2000), 190-192쪽).

81) 『三國史記』 卷35 雜志 第4 朔州, “善德王六年 唐貞觀十一年 爲牛首州置軍主”

82)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榮留王 21年, “冬十月 侵新羅北邊七重城 ….”

83) 『日本書紀』 卷23 舒明天皇 2年.

632년 왜는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태종은 이에 대한 회답으로 高表仁을 보내었다. 그런데 그와 왜국 왕자 사이에 儀禮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그냥 돌아왔다고 전한다.<sup>84)</sup> 이 사건과 관련해 『日本書紀』에서는 632년 8월 당이 고표인을 파견하여 三田耜를 보내주었고 대마도에 다다랐으며 학문승과 신라의 送使 등이 그를 따랐다고 한다.<sup>85)</sup>

그런 가운데 639년 고구려가 遣使함으로써 대당교섭이 재개되었다. 640년에는 세자 桓權이 당에 파견되었다.<sup>86)</sup> 오랜 침묵을 깨고 고구려가 대당교섭을 재개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서북방정세의 변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635년 토욕혼은 당의 원정을 받아 稱臣하게 되었으며 640년 8월 高昌은 멸망하였다. 그런데 당의 원정에 앞서 고창은 설연타에 사신을 보내어 당과의 관계를 離間시키려 하였으나 설연타는 당 태종에게 자청하여 軍向導로 원정에 나섰다.<sup>87)</sup> 동돌궐 멸망 이후 설연타는 당의 묵인 아래 세력을 확장하여 동으로 室韋에까지 이르렀으며 꾸준히 당에 견사하였다. 당과 설연타의 連和는 결코 고구려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었다. 고구려가 639년 對唐外交를 再開했던 데는 설연타라는 변수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설연타의 세력 확대에 당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 태종이 638년 설연타의 분열을 꾀하기 위해 夷男의 두 아들을 각기 小可汗으로 책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이 더욱 우려했던 점은 설연타와 고구려의 연합일 것이다. 수 양제가 돌궐의 장막에서 고구려 사신을 보고 원정에 대한 결심을 굳혔던 것처럼 두 세력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생각한다.

640년 12월 고구려는 세자를 입조시켰으며 國學에 자제의 입학을 요청하였다. 641년 당 태종은 答使로 職方郎中 陳大德을 파견하였다.

84) 『舊唐書』 卷199上 倭國, 5,340쪽.

85) 『日本書紀』 卷23 舒明天皇 4年. 임기환은 당이 반고구려 진영으로 왜를 끌어들이기 위해 對倭使臣을 파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앞의 논문(2006), 77쪽).

86)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榮留王 23年(640)조에는 ‘春二月 遣世子桓權入唐朝貢’이라 나온다. 『舊唐書』 卷3 太宗 貞觀14年(640) 12월조에 ‘高麗世子桓權來朝’ 하였다. 『冊府元龜』 卷974 外臣部 褒異1 貞觀14年條에도 12월 을묘에 來朝한 것으로 나온다. 『舊唐書』를 따른다. 拜根興은 당과의 긴장관계를 낮추고 국내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보았다(앞의 논문(2002), 423-424쪽). 전미희는 당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반대세력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취한 조치로 보았다(앞의 논문(1992), 279쪽 각주 23).

87) 『舊唐書』 卷198 高昌, 5,295쪽.

진대덕은 곳곳을 살살이 훑어보며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는 당으로 돌아온 뒤 그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高麗記』를 작성하여<sup>88)</sup> 태종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고창의 멸망소식을 듣고 大對盧가 세 번이나 사저에 찾아왔다고 전하였다.<sup>89)</sup> 태종은 山東州縣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내세워 고구려원정을 보류해 두었다.<sup>90)</sup> 특히 주목할 점은 진대덕과의 대화에서 고구려를 “本四郡地耳”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언제든 조건만 갖추어지면 원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sup>91)</sup> 이렇듯 고구려 주변정세는 설연타의 등장과 세력 확대, 당의 고구려원정에 대한 우려, 신라와의 군사 충돌 등으로 대외적 긴장감이 점점 높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였다.

그런 가운데 東部大人 大對盧 연태조가 641년(혹은 642년 초) 무렵 사망하였다. 연태조의 죽음으로 ‘대대로’는 공식으로 남게 되었다. 이와 함께 ‘大人’의 承襲을 당연하게 여겼던 연개소문이 國人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가까스로 동의를 얻어 뒤를 이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대로’ 선출을 둘러싼 문제가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주지하듯이, 國人들은 연개소문의 ‘殘凶不道’를 문제삼아 영류왕과 함께 그를 제거하려 하였다. 여기서 연개소문의 제거에 諸大臣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점은 연씨가문이 고구려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대변해준다. 이는 연씨가문이 몇 대에 걸쳐 차지했던 ‘막리지’직이 결코 연개소문의 정변을 통해 과대포장되었던 것<sup>92)</sup>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의 중추였음을 보여준다. 막리지는 근시적인 만큼 왕의 임명을 통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자유와 연태조 모두 막리지를 지냈으며, 특히 연태조는 대대로까지 거친 인물이었다. 즉 연씨가문은 왕권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며 성장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641년 연태조의 죽음과 함께 고구려 내 정치세력 간 역학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國人들이 철저하게 연개소문의 승습에 탄축을

88) 吉田光男,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特に筆者と作成年次」, 『朝鮮學報』 85(1977).

89) 『新唐書』 卷220 高麗, 6,187쪽.

90) 당 태종의 대고구려 원정 제약요인으로 김영하는 민심수습과 대외 명분의 필요성을 (『高句麗 內紛의 국제적 배경』, 『韓國史研究』 110(2000), 33-34쪽) 임기환은 서역지방에 대한 통제력 미확보(앞의 논문(2006), 77쪽)를 들었다.

91) 李成市, 앞의 논문(1993), 192쪽.

92) 이문기는 막리지의 정치적 기능과 위상은 연개소문 집권기의 성격이 소급·투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제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앞의 논문(2000), 91쪽).

결었던 점은 이러한 귀족들의 견제를 잘 보여준다. 더구나 연씨가문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화하였다는 것은 쿠데타 당시 연개소문이 제거한 인물 중에 연씨출신이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왕권을 배경으로 성장해 온 연씨가문과 영류왕이 갈등관계로 돌아선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연개소문의 승습에 영류왕이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왕실이 소속된 내부보다도 정치적 우위를 접하기 시작하는 동부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는 연개소문 개인 품성과도 연관해 볼 수 있다. 사료에서는 그를 포악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대외노선을 둘러싼 정치적 성향과도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왕실의 후계구도에 대한 문제와 연관해 볼 수 있다. 영류왕의 출생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영양왕이 565년 태자에 책봉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영류왕을 580년 전후에 태어난 것으로 잡더라도 640년이면 이미 환갑에 접어든 셈이다. 그렇다면 후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640년 태자 환권을 對唐使臣으로 파견한 이면에는 이러한 정치적 의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영류왕에게는 동생 태양왕이 있었다. 그는 연개소문 정변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죽었다. 연개소문이 태양왕의 아들을 보장왕으로 세웠던 데서 전미희의 지적처럼, 두 세력의 정치적 연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93)</sup>

이상을 통해 볼 때, 641년 연태조의 죽음과 함께 고구려 정국은 '대대로'의 선출을 둘러싼 문제와 왕실의 후계구도 문제까지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 이는 대외적 긴장감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던 상황과 맞물려 연개소문이 돌연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구려의 대당관계는 견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지게 되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영류왕대 고구려의 정국과 대당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동안 고구려의 대당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 아래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630년 당 태종이 동돌궐을 복속시킨 것을 계기로 양국관계

93) 田美姬, 앞의 논문(1992).

는 적대관계로 돌아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국내학계에서는 고구려 정국을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온건과 강경으로 구분한 뒤, 영류왕과 연개소문의 대립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영류왕대 정국과 대당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 정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역관계에 따른 대대로의 지위 및 성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고정화시켜 귀족연립정권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해 왔다. 아울러 돌궐이나 설연타와 같은 서북방유목세력의 존재가 고구려의 대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부족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영류왕대 고구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대응양상과 변화과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영류왕대 고구려의 정국주도세력을 검토하였다. 영류왕의 즉위와 관련해서는 석연찮은 측면이 있지만 高·隋戰爭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연개소문의 출생년과 막리지의 승급년을 기준으로 정국주도세력을 검토해 본 결과, 영류왕과 연씨가문은 기존인식과 달리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다. 아울러 대대로가 갖는 성격 역시 귀족연립정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웠다.

3장에서는 영류왕 전기 고구려의 대당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영류왕 전기 양국관계는 사신 파견·유인송환·책봉·칭신문제 등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양국이 우호관계 수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었던 데는 隋末唐初라는 혼란스러운 상황뿐만 아니라 요해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들어오는 동돌궐문제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625년부터 당의 대외정책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4장에서는 영류왕 후기 고구려의 대당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626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당 태종은 대외팽창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 연동하여 영류왕 후기 대당관계도 전기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며 전개되었다. 고구려의 대당관계는 사신파견 유무를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는 당 태종이 즉위한 626년부터 629년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했을 때까지이다. 이 시기 백제와 신라는 대당교섭을 통해 대고구려견제외교를 본격화하였다. 다만 당은 동돌궐문제로 인해 그 개입은 제한적이었다. 두 번째 시기는 630년부터 638년까지로 외교단절

기이다. 당 태종은 630년 동돌궐 복속을 계기로 서방으로의 대외팽창을 적극화하였다. 고구려는 동돌궐 멸망을 계기로 당의 적대정책을 확인하고 遣使를 중단한 채 상황을 주시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639년 이후로 대당교섭 재개기이다. 동돌궐 복속 이후, 막북에서는 설연타가 당의 비호 속에 성장하였으나 오히려 당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었다. 고구려와 당은 설연타가 상대국과 연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 오랜 외교단절을 끝내고 표면상 사신교류를 재개하였다.

한편, 고구려 정국에서도 연태조의 죽음 이후 '대대로' 선출을 둘러싼 문제와 함께 왕실의 후계구도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그 결과, 대외적 긴장감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던 상황과 맞물려 연개소문이 돌연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 참 고 문 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唐書』; 『舊唐書』; 『冊府元龜』; 『通典』; 『資治通鑑』; 『唐會要』;  
『日本書紀』;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 서울, 2003.
- 김기흥, 「고구려 淵蓋蘇文政權의 한계성」.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15-34쪽.
- 김영하, 「高句麗 內紛의 국제적 배경」. 『韓國史研究』 110, 2000, 29-54쪽.
-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 傳』. 서울: 바다출판사, 2003.
- 김진한, 「평원왕대 고구려의 대외관계」. 『국학연구』 11, 2007, 215-252쪽.
- 김진한, 「嬰陽王代 高句麗의 政局動向과 對隋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3, 2009, 69-94쪽.
- 김철준,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노중국,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45-107쪽.
- 노태돈, 「高句麗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52, 1986, 193-218쪽.
-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 리승혁, 「고구려의 《막리지》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5-1, 1985, 19-24쪽.
- 박춘택, 「唐代 逃戶의 발생원인과 그 영향」. 『中國史研究』 2, 1997, 1-41쪽.
- 서병국, 「中國人의 高句麗流亡과 遼東開墾」. 『白山學報』 34, 1987, 5-22쪽.
- 신봉조, 「淵蓋蘇文 政變의 發生背景과 動因」. 韓國學中央研究院 碩士學位論文, 2008.
- 송태호, 「唐初의 異民族政策 性格考」. 『慶北史學』 13, 1990, 27-53쪽.
- 신채호 著·이만열 註釋, 『朝鮮上古史(下)』. 서울: 형설출판사, 1983.
- 여호규,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國史館論叢』 91, 2000, 157-192쪽.
- 여호규, 「책봉호 수수(授受)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 2006, 31-59쪽.
- 이강래, 「한·중 사서에 보이는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 기록 비교 검토」. 『東北亞歷史論叢』  
15, 2007, 201-271쪽.
- 이기백,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1962, 1-52쪽.
- 이기백,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6.
- 이도학, 「高句麗의 內紛과 內戰」. 『高句麗研究』 24, 2006, 9-40쪽.
- 이만열, 「高句麗 思想政策에 대한 몇 가지 檢討」. 『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探求堂, 1971,  
11-35쪽.
- 이문기, 「高句麗 莫離支의 官制의 性格과 機能」. 『白山學報』 55, 2000, 57-110쪽.
- 이성규, 「中國 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2003, 7-33쪽.

- 이성제,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北方史論叢』 5, 2005, 137-168쪽.
- 이용범, 「大陸關係史-古代篇(上)」. 『白山學報』 18, 1975, 3-68쪽.
- 이용범, 「高句麗의 膨脹主義와 中國과의 關係」.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삼지원, 1987.
- 이흥직, 「『高句麗秘記』考」. 『歷史學報』 17·18, 1962, 329-344쪽.
-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서울: 한나래, 2004.
-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서울: 일조각, 2006, 49-90쪽.
- 전미희, 「淵蓋蘇文의 執權과 그 政權의 性格」. 『이기백교수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상)』, 서울: 일조각, 1992, 267-287쪽.
- 鬼頭清明,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東京: 校倉書房, 1976.
- 吉田光男,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朝鮮學報』 85, 1977, 1-30쪽.
- 金子修一,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東京: 名著刊行會, 2001.
- 内田吟風, 「西突厥初世史の研究」. 『北アジア史研究~突厥篇』, 同朋舍, 1975, 429-493쪽.
- 嶋崎 昌, 『隋唐時代の東トウルキスタン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7.
- 鈴木宏節, 「突厥阿史那思摩系譜考」. 『東洋學報』 87-1, 2005, 37-68쪽.
- 武田幸男,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東京: 學生社, 1980, 23-71쪽.
- 拜根興, 「激動의 50年-高句麗와 唐 關係 研究」. 『高句麗研究』 14, 2002, 397-446쪽.
- 沙畹 著·馮承鈞 譯, 『西突厥史料』. 北京: 中華書局, 2003.
- 西嶋定生,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3.
- 石見清裕, 「玄武門の變前夜の突厥問題」. 『史觀』 108, 1983, 35-46쪽.
- 窪 徳忠, 『道教史』. 山川出版社, 1977.
- 李成市, 「高句麗泉蓋蘇文の政變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1, 1993, 189-202쪽.
- 日野開三郎,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5卷. 東京: 三一書房, 1991.
- 佐藤長, 『古代チベット史研究』 上卷. 東京: 同朋舍, 1958.
- 中村裕一, 『隋唐王言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3.
- 布目潮瀨·栗原益男, 『中國の歴史-隋唐帝國』. 東京: 講談社, 1974.
- 護雅夫, 「隋·唐とチュルク國家」. 『古代史講座』 10, 學生社, 1964, 83-117쪽.

## 국 문 요 약

영류왕대 고구려의 대당관계에 대해서는 630년 당 태종이 동돌궐을 복속시킨 것을 계기로 적대관계로 돌아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국내학계에서는 고구려 정국을 대외정책과 연관하여 온건과 강경으로 구분한 뒤, 영류왕과 연개소문의 대립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영류왕대 정국과 대당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돌궐이나 설연타와 같은 서북방유목세력의 존재가 고구려의 대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부족하였다. 아울러 고구려 정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역관계에 따른 대대로의 지위 및 성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고정화시켜 귀족연립정권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해 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영류왕대 고구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대응양상과 변화과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영류왕대 고구려의 정국주도세력을 검토하였다. 연개소문의 출생년과 막리지의 승급년을 기준으로 정국주도세력을 검토해 본 결과, 영류왕과 연씨가문은 기존인식과 달리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다. 아울러 대대로가 갖는 성격 역시 귀족연립정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웠다.

3장에서는 영류왕 전기 고구려의 대당관계를 검토하였다. 양국은 우호관계 수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었다. 그 까닭은 隋末唐初라는 혼란스러운 상황뿐만 아니라 요해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들어오는 동돌궐문제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영류왕 후기 고구려의 대당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626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당 태종은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취하였다. 630년 동돌궐이 당에 복속되자, 고구려는 당의 적대정책을 확인하고 遣使를 중단한 채 상황을 주시하였다. 그런 가운데 동돌궐을 대신하여 설연타가 대두하자 이로 인해 위협을 느낀 고구려와 당은 외교단절을 끝내고 표면상 사신교류를 재개하였다. 한편, 고구려 정국에서도 연태조의 죽음 이후 '대대로' 선출을 둘러싼 문제와 함께 왕실의 후계구도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그 결과, 대외적 긴장감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던 상황과 맞물려

연개소문이 돌연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투고일** 2009. 9. 29.

**수정일** 2009. 12. 2.

**게재 확정일** 2009. 12. 9.

**주제어(keyword)** 영류왕(King Yeongryu), 연씨가문(Yeon family), 고구려·당관계(Koguryo-Tang relations), 동돌궐(Eastern Turks), 설연타(Hsüeb-yen-t'o)